

고등교육기관 위기… “인재양성 등 미래교육 혁신해야”

대학교 총장 신년사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강조
등록금동결 등 재정위기 언급

대학교 총장들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각 대학별 현안의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고등교육기관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학 등록금 동결과 강사법 시행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감도 드러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세기의 낡은 교육방식을 넘어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우리가 지난 4년간 시도했던 혁신과 다양한 시도들의 기본 철학은 앞으로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총장은 지난 4년간 시도했던 혁신으로 ICT 기반 Flipped class와 NeMo 강의 등 토론회 문제해결방식의 미래형 수업, 대학혁신체계(UIS) 구축, 의료원 KU-M ACIG출범,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착공, 미래 선도 10대 핵심기술 선포, SK미래관 등 미래형 캠퍼스로의 변화 등을 꼽았다.

염 총장은 새로운 대학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한 숙제가 많다면서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와 이 기회를 이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9 건국대 신년하례회'에서 민상기 총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용한 대학 평준화의 움직임, 학문 후속세대의 피폐화 등이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은 고대 가족들이 집단 지성을 모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서울대학교총장 직무대리(교육부총장)는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을 혁신하고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거는 무한한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 그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혁신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백용기 상명대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저는 2019년을 ‘교육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간의 국고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혁신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하려 한다”며 “특히 양 캠퍼스의 교육성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총장은 이를 위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대학’을 총장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나서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계적,

주기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기본소양과 융복합전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혁신을 ‘상명요즘교육’이라는 브랜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총장은 “양질의 교육과 복지, 낮은 등록금, 건전한 재정을 위해 다양한 국고사업 수주를 통해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수 연구 활성화, 직원 행정 역량 제고, 교육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2019년 신년사 서두에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은 우리나라 대학 모두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였다”면서 대학들의 재정적 위기를 언급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성과를 낸데 대해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동문의 응원에 대해 치하하고 교육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이제 연세의 교육은 경쟁을 벗어나 함께 배우는 교실로, 또 교실의 벽을 허물어 동료 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전인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우리 대학은 절대 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교수평가의 자율성과 재량을 확대하고 경쟁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은 앞서 배포한 신

년사를 통해 “2018년 중앙대는 다양한 분야 성장을 이뤄냈지만, 대학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재정과 교육·연구경쟁력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을 계왕개래의 해로 정하고, 100년 선배 동문들의 가르침을 통해 후학을 길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겠다”며 “새로운 비전 CAU2030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중앙대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포용과 혁신의 세계화 4.0시대”임을 강조하면서 “포용과 혁신을 토대로 힘을 모아 기해년을 중앙인의 위대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강대 박종구 총장은 신년사에서 ‘서강대 대학발전계획 10대 추진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10대 추진전략 중 특히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창의 인재양성 학사 혁신 분야’를 꼽았다.

박 총장은 “우수한 서강교육이 국제 수준에 맞는 질적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학생들이 서강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국제학생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분야에서는 “학부생 연구와 대학원생 연구, 교수 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홍민영 수습기자 hys@metroseoul.co.kr



인천재능대부속유치원이 지난 3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포상전수 시상식에서 모범기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인천재능대학교

인천재능대 부속유치원 감사 ‘모범기관’ 표창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3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포상전수 시상식에서 인천재능대부속유치원(원장 김연희)이 모범기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재무감사에서 인천재능대부속유치원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집행과 원비 출납관리, 물품구매 및 관리, 각종 계약 사항 등을 규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재능대부속유치원은 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회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는 새롭게 시행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앞두고 유치원 회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왔다.

김연희 원장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기반한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회계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초딩부터 코딩’… 교육업계 관련 상품 봇물

올해부터 초등 코딩교육 의무화
학습자 수준 맞춘 커리큘럼 제공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의 코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업계가 코딩 관련 교육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인 C언어, 파이썬, 스크래치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공교육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2일 코딩 관련 교육 업계에 따르면, 이 큐시스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한 스템(STEM) 기반으로 로봇공학(YRA), 코딩융합(YTA), 메이커 교육(YEA)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분석적 인지 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했다.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자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김정아 이큐시스템 대표는 “최근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코딩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코딩을 통해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능교육은 폴란드의 에듀테크 기업 ‘비크레오(Becreo)’가 개발한 코딩교구 ‘스카티 고(Scottie GO)’를 국내 독점 계약해 출시했다. ‘스카티 고’는 코딩을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들이 컴퓨터 없이 코딩 타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상품이다. 179개의 코딩 타일로 10단계, 91개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조건문, 반복문, 변수, 함수 등 코딩의 핵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미션 결과는 스마트폰, 태블릿PC로 확인 가능하다.

시공미디어는 코딩로봇 ‘뚜루뚜루(TRUETRUE)’를 선보이고 있다.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 초등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담았

고 간단한 언플러그드 코딩부터 융합형 콘텐츠까지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컬러 센서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배우는 컬러카드 코딩,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모션 인식 코딩, 직접 선을 그려 로봇을 조종하는 라인트레이싱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뚜루뚜루는 출시 8개월 만에 국내외에 3만대를 판매했다.

윤선생은 지난달 코딩교육 전문기업 코딩앤플레이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윤선생의 초, 중등 수행평가 전문학원 ‘IGSE아카데미’에서 영어뿐 아니라 코딩 교육도 배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로봇공학교육은 벡스 로봇 교구를 활용해 주제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고,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면서 수학, 공학, 코딩 분야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딩융합교육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코딩 언어, 스토리텔링 방법 등을 터득하게 해준다. /한용수 기자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두 달 만에 3배 증가

교육부 “인근 유치원서 수용 가능”

전국 10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거나 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일주일 전보다 2곳 늘었으나, 교육 당국은 이들 유치원이 모두 폐원해도 해당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6곳이었

고, 폐원을 신청한 곳은 8곳으로 집계됐다. 폐원 여부에 대해 학부모와 협의중인 곳은 94곳에 달한다.

운영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전북 5곳의 폐원이 승인됐고, 충남 유치원 1곳은 설립자측 건강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강원과 충남 소재 사립유치원 각 2곳씩 폐원을 신청한 상태고, 경기, 충북, 대구, 전남에 각 1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했다. /한용수 기자

직장인 “‘13월의 월급’ 37만원 기대”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금액은 평균 37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2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인 51.2%였다. 반면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인식하는 직장인도 40.5%로 적지 않았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게 한 결

과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45.5%)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낼 것’이라는 답변은 25.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9%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란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37만1000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금을 낼 것’이라고 본 그룹에서는 51만5000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 5명 중 약 2명(43.8%)은 연말정

산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 한다는 응답이 63.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30.2%)’하거나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사용금액 확대)(29.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17.9%)’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연말정산 난이도를 물었더니 ‘어렵다’는 답변이 총합 51.7%를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